

하나님이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누구를 믿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

사람들은 다 길을 가는 거와 같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죽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영생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 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역시 죽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느냐 하면 근본적으로 죽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길을 가는 것도 죽는 길을 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지관이 올바로 서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가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죽기 위한 가지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6000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마귀에게 포로가 되는 순간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흠을 빚어서 아담을 만들고 아담의 갈비를 뽑아서 해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면 아담과 해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을 몸이 되었다면 또 흠을 빚어서 죽지 않는 아담과 해와를 만들었어야 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이 된 인간으로 이루어진 다음에는 하나님 상태의 생각을 다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완

전히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흠을 빚어서 만들어진 걸로 상상을 한 사람이 성경을 그와 같이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쓴 사람도 죽은 것은 바로 생각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가 하면, 아담과 해와가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계시어야 하늘나라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늘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어야 하늘나라라는 말은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사신 곳이지 사람은 살 수가 없다는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살았는데 에덴동산이 천국이요 하늘나라라면 바로 아담과 해와도 하나님이요 하늘나라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류의 조상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으로 성경 구절, 구절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

또한 성경과 불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전에 사람이 하나님이였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이였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은 바로 사람 자체가 하나



구세주 조희성님

님이요, 사람이 하나님이 다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되어야 구원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어린이가 장난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자격이 없이, 하늘나라에서 사는 자격이 없이 하늘나라에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가니까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나 미국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영주권을 가지고 몇 년 있다가 한 4-5년 되면 시민권이 나옵니다. 시민권은 바로 그 나라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이란?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하는 소리는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성경이나 불경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생명과일이라는 말은 영적 말이요, 영적 말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고로 이제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일

이고로 영생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로 영생하는 하나님의 영은 바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라야 영생하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 나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 사망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일이고로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과일이 되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겨야 마귀를 이겼다가 되고 마귀를 이겨야 사망권세를 이겼다가 되니까 영적 무덤을 파하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 얘기보와 같은 마귀 영 속에서 석방돼 나오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은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 얻는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요,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 얻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성경 말이요, 성경 말은 영적 말이고로 영적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이란?

예수의 몸이 다시 살지도 않은 걸 가지고 다시 살았다고 해 가지고 부활절을 지키고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로 하나님의 영의 부활을 논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봐야 성경이 술술 풀리고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생명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사람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생명이 있는 고로 생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사람 속에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바로 선한 마음이요, 선한 마음이 선한 영이요 선한 영이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사람,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의 영이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라는 것은 바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욕심이 죄란 말씀이 쓰여 있는데 욕심 자체가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이 욕심 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항상 버려라." 이 말씀이 성경이나 불경에 쓰여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이 선악과요, 나라는 것이 바로 마귀요, 나라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고로 항상 버려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는 것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라는 게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라는 게 천당 간다는 말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고로 마귀 영 속에 갇혀있는 생명의 영이 되는 양심의 영 바로 하나님의 영이 영적 무덤 속에 갇혀 있다가 영적 무덤을 파하고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내가 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살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1992년 6월 26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훈옥 기자

[연재] 아브라함 족장시대에서 삼손의 사사시대까지



《1장 아브라함의 하나님》

(1) 외아들을 바치는 마음

(지난호에 이어서)
또한 아들 이삭의 순종 역시 하나님의 영이 자라는 데 가속을 붙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마귀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이 핏줄을 타고 그 영이 승승장구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해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내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속에서 '모리아 산에서 내려와 그 밭에 있는 천막으로 돌아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잠적하라'고 주장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브엘세바로 가라고 한 때에는 마귀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승리의 메시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망권세 잡은 마귀를 이겨가는 과정에서 겨우 한 단계 정도 올라갔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 22장 19절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로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2장 이삭의 하나님》 (1) 어머니 사라의 임종



브엘세바에 현존하는 아브라함의 우물(창 21:30) 생세계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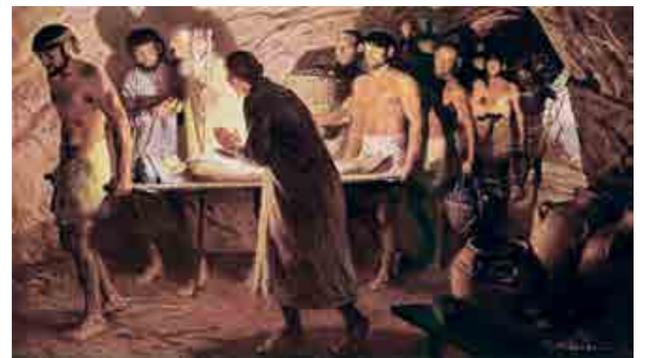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반제로 순종하는 일이 있기 보름 전에, 아브라함은 그밭의 천막에서 동쪽 20킬로미터 떨어진 브엘세바에 자신이 판 우물을 증거로 삼기 위해 안양새끼 일곱을 그밭왕 아비멜레에게 주고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자 그 우물결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안양새끼의 일곱 숫자와 에셀나무의 영생 상징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첫째 천사 아브라함, 둘째 천사 이삭, 셋째 천사 야곱에 이어 넷째 천사 단 그리고 다섯째 천사 예모님, 여섯째 천사 해와 이긴 자, 끝으로 일곱 번째 천사 구세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완성될 때에 죽음이 없는 영

(1) 어머니 사라의 임종

아브라함은 나이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브엘세바에서 3년 동안 살면서 아내 사라가 헤브론의 마므레 천막에서 살던 때를 그리워하며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23년 전에 마므레에서 "사라 구십 세에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라 자신은 마음속으로 웃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웃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알게 된 사라 자신은 두려워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고 했을 때, 그 두려운 존재로만 알았던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자애로운 음성으로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고 응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라 113세에 아브라함의 가족과 종들이 가족을 이끌고 기랴아르바(헤브론)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사라는 14년간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죽은 아내 사리를 마므레 앞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장사지냈습니다. 모리아 산꼭대기 제단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이삭은 이제 서른일곱 살의 청년이 되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로 인하여 너무 슬퍼 이름을 불렀으리라



막벨라 동굴에서 사라의 장례식을 치르는 아브라함과 그를 부축하는 아들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그 해에 기랴아르바에서 브엘세바의 남쪽 네게브(네펠)로 이주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네게브 이주 동기는 물론 아들 이삭의 건강을 걱정할 데에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곳에서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34년 전에 일곱 살 난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족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아들 이스마엘을 텨볼 한 구석에 내려놓고 "어린 자식이 죽는 것을 어찌 눈 뜨고 보랴?"하고 화살 한 방탄거리 만큼 떨어져 주저앉아 탄식하니, 마주 바라본 이스마엘도 엄마와 함께 소리 내어 영영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천사를 시켜 하갈을 불러 이르셨습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나?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네 아들의 울

부짓는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불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 주시니, 그녀의 눈에 '브엘라헤로'라는 샘이 보였습니다. 하갈은 가족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들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두 모자는 동남쪽으로 더 내려가 비탄 광야에서 정착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이스마엘과 함께 계셔서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 브엘라헤로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80킬로미터쯤 떨어진 서남쪽 네게브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의 '브엘라헤로이'라는 이 샘은 하갈의 태중에 이스마엘이 있을 때에, 주인 사래가 청 하갈의 땀방울을 피해서 머물렀던 곳이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타내시어 '짐으로 속히 돌아가라'고 위로했던 곳입니다.* 안젤라